



“아저씨 이 물을 먼저 드시지요”
 강사장 옆에서 한참 동안 물을
 받던 여인이 뜻밖에 자루달린
 바가지를 권했다. 머주하니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강사장은 내심
 가볍게 놀라면서
 “아니? 왜 받으신 물을 먼저
 드시지 않고……”
 하고 여인을 쳐다봤다. 한눈에
 봐도 30대 후반쯤의 다소 가녀린
 몸매에 낯날이 오뎅한
 여인이었다.
 “아네요, 어르신께서 먼저
 드셔야죠.”
 “허- 이거 그럼 염치 없이……”
 강사장은 자신이 들고 있던
 바가지를 옮겨 주고 여인이 떠준

물을 아주 달게 몇 모금 마시고
 났어도 영 미안하기만 했다. 그
 미안한 마음이 강사장으로
 하여금 대뜸 정혜사(定慧寺)
 뜰을 혼자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꿈결처럼
 안개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초겨울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그래 혼자 절 구경을 오셨군요.”
 여인이 정혜사 우물가에서 받은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려
 강사장은 넉넉한 마음으로 말을
 걸었다.
 “아저씨도 혼자신데요 뭘”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다.
 “아-하, 그런가요?”
 강사장은 펍 재미있는

여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 이 정혜사나 수덕사에
 처음이세요?”
 “네, 수덕사와 정혜사가 너무
 좋다구 해서 중이나 돼 볼까하고
 혼자 떠나오긴 왔는데 막상
 오고보니 용기가 안나네요”
 여인은 보기와는 달리 엉뚱한
 소리를 했다.
 “아니? 그 나이에…… 너무
 뜻밖인데요”
 강사장은 어이가 없었다.
 “아저씨두 참 어디 중되는
 사람이 따루 있나요. 속세가
 싫으면 입산할 수도 있잖아요.”
 여인은 너무 태연하게 말했다.
 “네…… 하기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촉촉한 정혜사
마당을 지나 멀리 구름과 안개에
뒤덮힌 서남쪽 산들이
바라보이는 마당 가장자리까지
와 있었다. 초겨울의 안개비에
묻힌 산사의 정경은 가위 선경
그대로였다.

사실은 ‘수도 도량이니 일반
관광객의 출입은 삼가해 달라’는
뒷문의 표지를 무시하고 두 사람
다 마침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도둑처럼 스며들어 와서 몰까지
며 마셨으니 큰 목소리로 떠들
입장도 아니었다.

“참, 여기는 경치가 기가
막히는군요”

여인은 거침없이 꽤 큰 목소리로
말했다.

“환상의 암자같죠, 아마 안개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 조용히 말하세요
스님들에게 쫓겨납니다.”

사실 아까부터 강사장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기까지 해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글쎄 말예요. 저보고 지금 당장
저 선방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자면 미련없이 머리를
깎고 싶게 매혹적인 암잔데요.”
여인은 겁도 없이 예의 큰
목소리로 절쪽을 돌아보며 한
마디 더 했다.

그때였다. 아나나 다를까,
절방문이 탁 열리면서 꽤 성깔
있어 뵈는 스님 한 분이 밖으로
나오더니

“거기 두 분, 빨리 나가주세요!
여긴 공부하는 도량이라 아무나



김 용 철

61년 동국대 국문과 졸/76년 고려대
교육대학원 졸/65년 충청일보 신춘 문예
시 '薔薇' 당선/77년 현대문학 소설
'열녀비' '허상' 추천 완료 데뷔
· 현재 : 동국대 출판부장/국제 P.E.N
클럽 회원/소설 동인회<문맥>대표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나?
 빨리 나가 주세요”
 하는게 아닌가. 낭패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기부터 했다. 마당 동편으로 마침 빗장을 건 대문이 보였다.
 “아저씨 나가라는데 저 대문으로 나가죠. 그래야 빨라요”
 여인이 잼싸게 대문쪽으로 다가섰다.
 “으응, 그래도 아까 들어온 문으로 나가야죠”
 강사장은 대문마저 따 놓으면 스님들 일만 늘 텐데 싶어 저으기 난처했다.
 “아이구 아저씨두, 언제 거기까지 또 올라가요, 빨리 따라 오세요”
 여인은 बै심 좋게 빗장을 벗기더니 손짓까지 한다.
 강사장은 하는 수없이 여인의 뒤를 따라 대문을 벗어났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내 스님이 마당을 걸어 나오는 소리가 나더니
 “원 대문 까지들 따놓고 다니니……”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대문 밖에 서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큰 소리도 못내고 한참을 웃고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란히 돌계단을 걸어 내리며 아까 보다 더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 남편이 하두 술마시고 속썩여서 아예 이혼이나 하고 입산할 결심으로 아까 견성암이란 여승당에 가보니 그

스님들도 벗어부치고 김장하는 모습을 보고 속세에서 하는 일 절에서도 하는구나 싶어 이혼만 하고 중이 되는 일은 유보하기도 마음먹었어요”
 안개비 타인지 여인은 웃을 때와는 달리 자신의 심사를 차분하게 먼저 말했다.
 “으음- 부군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십니까?”
 “말도 못해요. 40이 넘었어도 거의 날마다 고주망태니 이젠 무슨 결심을 해야지 더는 못 참겠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 음산한 날 왜 이 절까지 오셨지요?”
 “전 안 사람이 10여년 동안 유방암으로 시달리는 중인데 이젠 머지않아 아무래도 세상을 뜰 것만 같아서 기왕 유명을 달리하면 극락왕생이나 하게 해주십사고 부처님께 빌러 왔습니다만.”
 50대 초반의 강사장은 사실 그랬다. 벌써 10년이 넘게 아내가 유방암으로 외병 중이니 세상 아무 덧정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사업에만 열중하다가 이렇게 가끔 혼자 절에 와서 기도도 할겸 머리를 식히는게 그의 유일한 위안인지도 몰랐다.
 “네-, 아저씨 그럼 아주 잘 됐네요, 전 곧 이혼할 몸이구 아저씨는 곧 상처할 판이니 아저씨가 상처하는 즉시 제가 이혼을 하고 아저씨와 재혼을 한다면 얼마나 근사해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아예 오늘 말로라도

약혼을 해 들까요?
 재밌잖아요?”
 여인은 갑자기 호들갑을 떨었다. 강사장은 너무 기가 찼다.
 “아니? 약혼이라니?”
 “아유, 재혼을 위한 언약이랄지 그런것 말예요, 얼마나 멋져요”
 “멋져? 아니 내 와이프가 멀정히 살아 있는데 벌써 재혼 약혼을 하자 그말여”
 강사장은 눈을 부라렸다.
 “췌, 싫으면 관둬요. 하긴 나두 멀정한 남편이 있다구요, 보아하니 괜찮은 아저씨 같아서 흠애비되면 봐줄까 했더니……”
 “아니, 흠애비?”
 “안 그래요, 상처하면 흠애비지. 도리 있어요. 그나저나 우산도 없이 안개비를 맞고 건다 보니 저도 좀 아난게 아니라 어떻게 된것도 같구요. 아저씨 미안해요. 저 먼저 버스 타러 갈게 부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여인은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계단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허- 이거 날곳은 날 길을 나섰더니 영 망신이로군)
 강사장은 맥이 타악 풀렸다. 둘이 정겹게 걸어내리던 환상의 길이 순간 어둡고 칙칙한 산길로 변했다.
 (하긴 내 탓이지, 왜 살아있는 아내를 놓고 극락왕생 어찌구 하는 말을 경솔하게 했는가 말이다.)
 그는 차가운 안개비를 맞으며 거듭 후회를 씹었다. ☹